

큰스님 수행한담

우주 전체가 환해져요



1984년 극락정사에서 열린 국제보살계수계식 장면.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부터 동월스님, 서경보스님, 스리랑카 피아디시종정스님.

님은 당시 법문을 최고로 잘했고 경도 거꾸로 외울정도였지요. 일후스님이 법상에 올라가 경책을 펼치고 법문을 하면 참 멋있기도 하고 내용도 귀에 속속 들어왔지요. 특히 일후스님의 야외수업은 일품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야외수업은 금강산 일주였어요. 금강산에 이력이 흰했던 스님은 학생들을 금강산 골짜기까지 데리고 다니며 설명하듯, 유점사까지 가

말이 어찌나 총격적이었던지 뇌리에 강하게 남았지요. 만행을 끝내고 현재 태고종 종정스님 이신 덕암스님과 불교청년회 운동에 매진했지요. 청년회원들과 조직을 재건하고 본격적인 불교위상찾기에 나섰습니다. 불법에는 원을 새우면 안되는 일이 없어요. 원을 세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을 다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법입니다.

“시련 닥칠수록 용기 필요 원 세우고 정성껏 기도하면 안되는 일이 없는 법이지요”

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본산이었던 신촌 봉원사에 가서 배급을 받아왔지요. 그때를 잊지 못하는 의미로 당시 관악산 11개 사찰 주지였던 스님들과 자회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노쇠하다보니 모임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지요. 연주암에 있을때부터 백일기도를 한뒤 3년간 관음기도를 했어요. 당시 얼마나 목탁을 부쳤는지 모릅니다. 목탁이 부서지면 절을 했는데 목탁에서 떨어진 나무 조각들이 법당에 내려앉아 손자국이 날 정도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불자들에게 기도비를 안받습니다. 공양미를 한주먹 가져오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백일기도가 끝나면 동참했던 불자들에게 꼭 백일기도 성만기법 염주를 목에 걸어줍니다. 선과 염불기도는 모두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수행법의 하나입니다. 어느것이 수승

“남 배려없는 나만의 기도 옳지 않아요” “나쁜 생각 하나가 만가지 악업 될수도”

서 그곳에서 비구계를 받게 했습니다. 건봉사 법우강원에서 법우회장 소임을 맡아 보기도 하고 논내리는 건봉사에서 학인들과 함께 산속을 헤집고 다니며 등산하고 공부할때는 피나게 정진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종무소에서 유향을 가라고 권했지만 모든 것을 쫓아내고 만행을 떠났습니다. 가장 먼저 유점사 서울포교소였던 사간동 법원사에 갔는데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냈던 대륜스님이 계셨지요. 스님은 어찌나 엄격하고 무섭게 대하셨는지 학생들 뿐 아니라 신도들도 공부를 엄청나게 했지요. 신도들도 염불을 웬만한 스님보다 더 잘 할 정도였으니까요. 송광사에 가서 구산스님과도 만났는데 스님은 해탈 얘기를 하며 ‘껍데기를 벗어 버려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좌절하면 더이상 헤어나오질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선다는 강한 마음을 내면 그사람은 어려웠던 기억을 약으로 삼아 반드시 성공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부처님은 큰사람을 만들기 위해 해서 어느정도 고통을 일깨워 주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밟고 일어나라는 말이지요. 1943년에 관악산 연주암 주지를 맡으면서 관악산 11개사 주지대표에 취임했습니다. 당시 윤경스님(봉선사 회주) 법흥스님(원효종 종장) 입적한 서봉스님등과 함께 관악산에서 주지를 하고 있었는데 주지대표는 사찰에 식량을 대주는 책무가 가장 컸어요. 당시 사찰은 경제가 어려워 특별배급으로 생활했습니다. 동사

하고 못하고는 없어요. 단지 깨달음의 길로 가는 여러갈래 길에서 내가 편하고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자들 스스로 자기 근기에 맞는 수행법에 따라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세속생활이라는 것이 잡념과 공상이 많은지라 불자들에게 염불기도 할 것을 권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정진해야 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있는 그곳에서 생활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은 부처님의 바다속에 있는 아름다운 진주와 같습니다. 기도를 하게되면 영원과 하나가 되고 무한한 힘을 이끌어 내주는 원천이 돼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베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는 나만의 기도는 커다



성재도

〈부산불교교육원 원장〉

21년 전, 2월이 다 가는 날 지리산 쌍계사 국사암에 들어서고 있었다. 이미 해는 저물고 1200년 묵은 암자에는 아무도 머무는 이 없고 어둠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텅 빈 암자에서 홀로 첫 밤을 보내게 됐다. 해는 지고 정적불도 없는 암자에 아궁이가 어디에 있는 지 또 이불은 어디에 있는 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방에 머물러야 되는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빈방을 찾아서 좌복을 깔고 덮고 하여 하룻밤을 거의 뜬눈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아침 추위와 외로움으로 보낸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공양을 준비해야 했다. 첫날부터 새벽예불은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어 지나쳐야 했다. 아침 공양을 준비하려 해도 쌀과 노란 불교학생회 활동에 전념하였고 방학이면 집에 있는 날짜는 고작 2~3일 뿐이었다. 마치 구도처럼 전국의 여러 절을 혼자 다니면서 큰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고 며칠씩 머무르며 수행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나니 군대 가기 전에 내 마음을 닦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들어선 지리산 쌍계사 국사암. 절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어 혼자서 몇 달을 지내게 됐다. 그 1년 전, 만 스무 살 생일에 전라남도 송광사의 방장으로 계셨던 구산 큰스님으로부터 ‘일도(一導)’라는 법명을 받았다. 군대에 오라는 징집영장을 받고나서 국사암에서 내려 왔다.

쌍계사 국사암서 불교와 첫 인연 불교가 삶의 인식처였던 청년기

꿈 그리고 간장은 보이는데 다른 것은 어디에 있는 지 알 수 없었다. 밥술은 커다란 가마솥이었다. 그 큰 가마솥에 열물의 밤을 지었고 다시 꿈을 큰 가마솥에 넣어서 익혔다. 익었는지도 알 수 없는 밤과 꿈 그리고 간장으로 아침 공양을 해결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밤에 보았던 어둠 속의 절이 아닌 밝은 햇살 아래의 절을 천천히 둘러 보았다. 3백년이 넘는 암자의 지붕은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다. 부처님 계신 절에 들어가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하고 신고식을 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부처님과 나의 첫 만남이었다. 삭발도 하지 않았으면서, 고시 공부 하러온 학생도 아니면서 어떤 인연으로 텅 빈 암자까지 오게 되었을까? 대학에 갓 입학한 어느 날, 문득 전생(前身)에 이 암자의 공간을 촉내던 서생원(生員)이었다가 그 빛을 갈고려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불교를 느끼게 되었고 그후 초발심으로 이어져 세상과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학기 중에는 학과 생활 보다는 불교학과생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군에 복무한 33개월의 시간도 나에게와는 절에서의 생활과 다름없었다. 물만 병영에 있었지 국사암에서와 다를바 없었다. 군대도 나의 삶의 시간이고, 공간이며, 수행

처라고 생각했다. 부처님을 향한 마음과 마음공부는 변함 없었다. 군대에서의 나의 속제는 ‘물들지 말아야지(無染而淨)’였다. 고된 훈련 생활에서도 아침의 기상 나팔소리는 오늘도 ‘날마다 좋은날’의 시작이었다. 무거운 무기를 어깨에 매고 오르는 강원도의 높은 산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루의 근무를 마치고 밤에는 다시 사생들을 위해서 군중 활동을 했다. 제소리를 내지 못하는 목탁소리, 독경소리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한 채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병영생활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나를 크게 깨우쳐 주고 무사히 군대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정신적 위안이 되었던 불교. 나는 전역후 확고한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해 새 길을 찾아 나섰다. (계속)

Advertisement for '신식 감정콩' (New Style Sensitivity Beans) by Seon-sik Kim. It features a portrait of the author and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of the beans for health and vitality.

Advertisement for '왕토 흙벽돌 기계' (Kwangto Earth Brick Machine). It includes an image of the machine and details about its features,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ongsung Kwangto Village'.

Advertisement for '제7차 송광사 '송광삼' 겨울 수련회 안내' (7th Songgwangsa 'Songgwangsa' Winter Training Meeting). It provides a schedule of events, including dates, times, and locations for various sessions.